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출범

제13기 위원 위촉장 전달 및 임원진 8명 구성

제13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포천시협의회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가 지난 16일 포천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제13기 포천시 협의회의장으로 임명된 윤장일 회장에 대한 위촉장 전달에 이어 제12기 이종희 전임 회장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1차 정기회의는 제13기 임원구성안이 상정되어 임원 8명에 대한 인증을 박수로 결정했다.

윤장일 신임 회장은 "우리나라는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뼈아픈 현실을 가지고 있다"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조국통일의 주역으로 소임을 다해달라는 뜻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7천만 동포의 열망인 조국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단열매를 후손들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13기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자문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해 모두 3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은 제13기 민주평통 포천시협의회 임원 명단이다. ▶협의회장 윤장일 ▶부회장 최호열 포천신문 발

행인 ▶부회장 김성남 시의원 ▶간사 전순이 12기 위원 ▶기획운영위원장 이준호 12기 위원 ▶교육홍보위원장 김중기 12기 위원 ▶여성복지위원장 박순복 12기 위원 ▶행정실장 최창근 12기 행정실장 등이다. 한편 민주평통 제13기 출범식은

오는 19일 올림픽공원 컨싱경기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 자문위원 8천339명과 해외 자문위원 대표 35명, 초청인사 303명, 기 타인사 1천300여명 등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주부명예기자단 제4대 임원 선출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 제18차 정기회의가 7월12일 오전10시에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제4대 임원을 선출하는 정기회의로 단장에는 박해자 포천동지부장이 선출되었으며 부단장에는 김미경 영북면지부장, 김순희 내촌면지부장이, 감사에는 용경자 주부명예기자가 선출됐다.

정관개정 건, 윤리강령 확인 건, 제4대 임원 선출 건, 기타 안건 순으로 진행된 이날 정기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상임고문 김영복 ▶고문 김기호 ▶고문 임경순 ▶부단장 김미경 ▶부단장 김순희 ▶감사 용

경자 ▶총무 송미령 ▶부총무 이종혜 ▶부총무 신델라 ▶이사 강옥자 ▶이사 이은미 ▶이사 노훈심 ▶이사 김명희 ▶이사 김진숙 ▶이사 이효정 ▶이사 조장희 ▶이사 권귀자 ▶이사 이종실 ▶이사 김옥남 ▶이사 신형숙 ▶이사 장선욱 ▶이사 황은나 ▶이동면지부장 권경자 ▶영북면지부장 강기숙 ▶화천면지부장 김은주 ▶포천동지부장 박형민 ▶내촌면지부장 임선화 ▶가산면지부장 박옥석 ▶영중면지부장 곽복준 ▶군내면지부장 김진남 ▶관인면지부장 윤미애 ▶일동면지부장 정미옥 ▶소흘읍지부장 이명순 ▶선단동지부장 조선희 ▶신북면지부장 이미정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조사위원회 야유회 겸 워크숍 실시

포천신문 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기회의를 갖고 8월14일과 15일 1박2일 일정으로 야유회 겸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야유회 겸 워크숍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임원진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신임 위원들이 위촉된 후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조사위원 위촉 자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중현 조사위원회 고문은 "조사위원들 중에서 가산과 송우리 지역 거주자가 많다"면서 "관이나 영중, 화천, 포천동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조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사위원 여러분의 사업장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고 건강에 유의하기를 바란다"며 "조사위원 권위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가지고 일하면 권위는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열 발행인은 "이상일 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원진을 구성한 첫 정기회의이며 새로운 임원진이 잘 운영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조사위원회의 기사거리 제공 및 친목도모, 구독자 배가운동 등을 통해 조사위원회가 자리매김 하면 한다"고 당부했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이상일의 탐조(探鳥) 이야기 ② 청호반새 [Black-capped Kingfisher]

“꼬로로” “꼬로로” 검은 모자의 멋쟁이

아카시아꽃 향기 만발한 5월, 빠꾸기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쯤이면 청호반새 부부의 욕구를 굴러가는 듯한 “꼬로로” “꼬로로” 울음소리가 우리 동네 뒷동산에 울려 퍼집니다.

이들은 머나먼 남쪽나라에서 번식을 위하여 이곳까지 날아와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길모퉁이 돌아있는 절개지는 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금자리 터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도 없이 그들은 운문을 던져 절개지에 부딪히며 그 충격을 이용하여 부리로 구멍을 내어 집을 짓는데, 몇 번이고 그 동작을 계속하다 날개에 흠이 묻어 무거워지면 근처에 있는 개울가로 가서 물을 묻혀 털어 내 날개의 균형을 잡는다고 합니다.

둥지 만드는 일은 숫컷이 하며 암컷은 동지가 다 만들어 질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며 숫컷에게 힘이 되어 줍니다.

둥지는 천적으로부터 그들의 소중한 어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약 2m 정도의 높이에 깊이는 50 Cm 정도에 집을 짓는데, 이때부터 어미새의 눈물겨운 번식이 시작됩니다.

둥지가 완성된 날 지쳐있는 청호반새 부부는 서로를 위로하며 맑게 떠오른 보름달을 쳐다보며 태어날 어린 새끼들을 걱정하며 하얗게 밤을 지새웁니다.

어미새는 5~6개의 알을 낳고 포란에 들어갑니다.

새끼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기 해 어미새는 먹이사냥도 못하고 알 품기를 하는데, 이때 숫컷은 암컷을 위해 부지런히 사냥을 하여 포란중인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해 주더군요.

어미새의 사랑으로 부화한 어린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동지박으로 들려오면 어미새의 먹이사냥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린 새끼의 성장속도에 맞추어 애벌레, 메뚜기, 잡자리, 개구리 심지어는 쥐, 뱀 등도 잡아다 먹이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들의 번식중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천적으로부터 어린 새끼가 공격을 당하거나 먹이사냥을 하러 간 어미 새가 포식자에 희생당하거나 심지어는 그들의 동지가



2007.07.12 소흘읍에서 촬영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중장비 등에 의해 무참히 파헤쳐지기도 합니다.

다행이 이번엔 관찰한 동지는 청호반새의 번식이 끝날때까지 개발이 유보된 상태라 어린 새끼 4마리가 무사히 이소(離巢)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새끼의 힘찬 날개 짓을 바라보는 어미 새의 눈에는 힘찬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어린 새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린 새는 비행방법부터 시작해서 사냥법과 천적을 피하는 방법 등을 배워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기 전 어미를 따라 따듯한 남쪽나라로 떠나게 되겠지요.

청호반새는 천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할수있는 안전한 동지

를 만들기 위해 그들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행이 작년엔 사용했던 동지를 재활용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그나마 이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호반새는 점차 사라져 가는 여름철새로 우리나라와 만주 지방이 최북단 서식지 인접을 감안하면 이들의 안전한 번식지 확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청호반새의 화려한 날개 짓을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포천신문 조사위원장 이상일 017-705-0994

제2대 포천시의회 개원 1주년

포천시의회는 16만 시민의 곁에서 열린의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6만 포천시민 여러분!

제2대 포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민의기관으로 시민들의 귀와 입이 되어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인인식을 발휘하여 인정이 넘치고 밝고 명랑한 사회를 우리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포천시의회는 희망속에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생산적이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의정**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책임의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활의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포 천 시 의 회